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문제와 대책 -

이 헌 록

0. 머릿말

1978년 12월에 문교부가 발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은 그 이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집, 종합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 오다가 1979년 11월에 드디어 최종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나, 이 역시 아직도 최종적으로 공포,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교부가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마련하려는 동기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몇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과, 미군기관, 일부 관공서, 영자 신문 등에서 1939년에 제정된 "머큰-라이샤워 표기법" 또는 기타의 표기법을 고집하는 까닭에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하는 듯하다.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로마자 표기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고찰한다.

1. 로마자 표기의 한계성

로마자 표기법이란 로마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방법을 말한다. 로마자 표기법은 이를 사용할 대상과 목적에 따라, 내용상 서로 다른 몇가지 종류로 가릴 수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기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훌륭한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한국어를 정밀하게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로마자 표기의 한계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의 정서법인 한글 맞춤법 표기의 한계를 인식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글 표기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말을 정밀하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사람"/사:라ㅁ/, "과자"/과자/, "은행"/으ㄴ해/ 은 방언 배경에 따라 /사라ㅁ/, /가자/, /어ㄴ내/ 등으로 소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방언 배경이 약간 다르면 같은 낱말을 다르게 발음하는 데, 하물며 외국인이 우리의 로마자 표기를 보고 어떠한 발음을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가령, 다음의 로마자 표기는 영어 사용자와 불어 사용자가 각각 다르게 발음하기 마련이다.

dal (Eng) [dæɪ], (Fr) [dal] (달)

Seoul (Eng) [siuɪ/souɪ], (Fr) [seul] (서울)

Sinla (Eng) [sinlə], (Fr) [sɛ̃la] (신라)

Silla (Eng) [silə], (Fr) [sila] (신라)

harira (Eng) [həraɪrə], (Fr) [arira] (하리락)

위의 예를 한국 발음에 가깝게 적으려면, 다음과 같은 간략 음성 표기를 해야 한다. 물론 더욱 정밀한 음성 표기를 할 수도 있다.

dal [ɢaɪ], Seoul [sʰauɪ], Sinla [sʰilla]

harira [harira]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첫째로, 외국인은 우리의 로마자 표기를 보고 자기 모국어의 발음 습관대로 음가를 부여하여 발음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말의 말소리를 정밀하게 적을 수는 있으나, 정밀한 표기를 하려 할수록 표기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말의 소리값을 가장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기법은 정밀음성표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밀 표기는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적을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발음을 해낼 수도 없는 단점이 있어서 일반적인 표기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더구나 로마자 표기법이란 일상 쓰이는 로마글자를 이용한다는 근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볼때에, 로마자 표기법이란 근본 성질상 원음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가 없으며, 이를 지나치게 믿고 기대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 로마자 표기란 일종의 체계적인 약속에 지나지 않

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법 제정의 대상과 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체계적인 표기법을 정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단편적인 세부 사항에만 집착하다가 전체적인 체계를 흐트러트림과 동시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2. 표기 체계의 종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말소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기 체계는 음성 기호를 이용한 정밀 음성 표기법이다. 그러나, 이는 정밀한 반면 복잡하여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에는 결국 음운표기와 형태표기의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음운표기는 소리나는 대로 적되, 다만 음운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며 형태표기는 형태음운 중심으로 적는 것이다. 즉, 형태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글자중심의 표기라고 볼 수 있다.

보기) "맑은 시냇물과 젊고 푸른 산림" (맞춤법)

/말근 시넨물과 젊 꼬 푸른 살림/ (음운 표기)
/malgun sinɛnmulgwa ʃʌ:mko phuluwn sallim/

맑은 시냇물과 젊고 푸른 산림 (형태표기)
/malgun sinɛsmulgwa ʃʌmgo phuluwn sanlim/

한글과 로마자로 적은 위의 예에서 음운표기는 실제 발음을 반영하고 형태표기는 맞춤법 표기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음운표기는 원음의 전달 및 재생 능력이 높으며, 형태표기는 낯말의 시각적인 형태를 전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높다.

3.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 대상과 용도

로마자 표기법은 이를 사용할 대상과 용도에 따라 표기 체계의 종류가 결정될 것이다. 가령 한글과 우리말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명, 도로명, 역명, 관광지명, 인명, 문화재명 따위를 로마자로 읽을 때는 당연히 실제발음을 위주로 한 음운 표기가 이상적이며(그들이 로마자를 보고 발음할때에 우리말의 실제 발음에 그래도 유사하게 들리는 "청각/음성적 환원성"이 강하기때문에),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적어서 한국인에게 확인을 요청한다든지, 외국주재 한국상사와 본사간에 텍스트를 로마자로 치는 경우에는 형태 음운적 표기(한글 맞춤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는 "시각/문자적 환원성"이 강하므로)가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속리"는

songni/ 송니 (음운 표기)

sogli/ 속리 (형태 표기)

와 같이 로마자와화 할 수 있는데, 음운 표기는 청각적으로, 형태 표기는 시각적으로 원말로의 환원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두 가지 표기법은 서로 상반되는 장점을 지니므로 대상과 용도에 따라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4. 현행/ 시안/ 및 확정안의 비교

지금까지 논술한 로마자 표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현행안과 1978년에 발표된 시안 및 1979년 11월에 나온 확정안(미공모)을 비교 검토해 본다.

현행안은 한글의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는 형태음운적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음운표기(보기: "값과" /gab(s)gwa/, "옷과" /osgwa/odgwa/ 로 형태 표기와 아울러 음운표기도 허용)를 허용하고 있다. 시안은 형태 표기를 다소 완화하여 음운 표기쪽으로 접근한 절충식(보기: "속리" /sogli/ 와 /songni/의 중간인 /sogni/)이다. 1979년에 나온 미공모 확정안은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장 제 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의 정신이 대변하듯이, 음운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완전한 음운 표기가 아니고 아직도 부분적인 형태주의가 가미된 안이다. 가령, "형태소 결합에서 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제 3장

제 3항 참조) 에 따라 다음의 낱말들을 가)와 같이 적지 않고, 나)와 같이 표기 한것은 형태표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증거이다.

	"독립"	"십리"	"신라"
가)	dognib	simni	silla
나)	dognib	sibni	sinla

위에서 확정안이 제시하는 나)의 표기는 소리나는 대로 적은 음운표기가 아니므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 표준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원칙(제 1장 제 1항)에 어긋난다.

5. 표기에 쓰이는 글자 선택의 문제

로마자 표기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기호의 선택 문제이다. 로마자 중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사용할 로마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므로 부족한 글자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위의 세 가지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음의 표기에서 현행안은 이중자를 이용하는 데 반해서 시안과 확정안은 모음외에 단음 부호를 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점이다:

	<u>현행안</u>	<u>시안/확정안</u>
모음 /어/	eo	ö
모음 /으/	eu	ü

이렇게 되면, 시안/확정안은 머쿤/라이샤워의 모음 표기와 동일하게 된다.

6. 평가와 제안

6.1. 표기 체계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 안중에서 현행안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월하다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시안/확정안은 원음의 환원성을 고려하여 다소 음소 표기로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완전한 음운 표기가 아니므로 원음의 환원성이 완전하지 못하다. 한편, 현행안은 비록 형태 표기를 한다고 하나 음운 표기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gabsgwa/gabgwa 따위) 결국 현행안과 시안/확정안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2) 청각/음성적 환원성과 아울러 시각/문자적 환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거시적 안목으로 볼때에도 현행이 유리하다.

3) 로마자 표기란 보통 지명, 도로명, 인명, 문학제명 따위의 명사형이 주 대상이고 동사 따위의 복잡한 받침을 가진 낱말은 대상이 될 확률이 아주 낮다. 즉, "젊다", "값과", "음차" 같은 말로 로마자 표기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러므로 낱말의 형태가 단순한 것을 표기대상으로 한다면 음운 표기와 형태 표기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음운 표기와 형태 표기를 구별짓는 중요한 요소인 형태음운의 복잡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해서는 현행의 형태표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6.2. 로마자 선택의 문제. 현행안대로 모음을 이중자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안/확정안 의 구별 표시를 이용한 모음 /어/ 와 /으/ 의 표기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제 1장 제 2항)는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대단히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다. 국제음성학회에서도 이 같은 구별부호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구별부호, 즉 반원을 더하여 ǒ, ǔ 와 같이 표기한다고 하여 /어/ 와 /으/의 음가가 더욱 정밀하게 발음되고 전달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ǒ, ǔ 같은 표기는 단지 이들이 o, u 와 다르다는 시각적인 암시를 하는데 그칠뿐이다. 실제로 한국어의 /어/ 와 /으/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어려운 모음이어서 거의 올바른 발음을 못하므로 어떠한 기호로 적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본다. 따라서 구태여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어려움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반언은 전통적으로 단음을 표시하는 부호로 쓰이므로 오해의 염려마저 있다. 따라서 단음 부호를 사용하는 확정안 보다는 손쉬운 이중자를 쓰는 편이 이상적이다.

3) /어/ 와 /으/ 을 ㅛ, ㅜ 로 적는다면 균형상 /애/ 도 의당 같은 구별 부호를 사용하여 ㅝ 로 적어야 할터인데 시안/확정안은 이를 이중자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안은 세 모음의 표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4) 현행 표기는 이미 지난 25년간 각종 교과서, 지도, 도로명, 고유명사 등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로마자 표기법을 바꾼다고 한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훌륭한 대안이 없는 한 현행안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5) eo, eu 의 표기는 음성학적인 근거도 지니고 있다. 즉, eo 는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e 와 o 의 높이에 있고 eu 는 e 와 u 의 높이에 있음을 나타낸다.

6) 자음 기호의 선택은 세 가지 안이 일치하고 있으며 필자도 여기에 이의가 없다.

7. 대안

지금까지 위에서 세 가지 안을 비교 평가한 다음, 현행안이 역시 가장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하였거니와, 외국인의 입장을 위주로 하여 청각/음성적 환원성만을 목표로 하는 표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실용적인 로마자 표기법을 별도로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즉, 표기법을 이원화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의 형태 표기는 기본적인 종합적인 방안으로 계속 지켜나가고, 별도로 순수한 음운표기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형식이 된다.

7.1. 실용 로마자 표기법. 이 표기법은 관광궤 및 일반적으

로 외국인을 위한 실용적인 표기법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되 다만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1) 음운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 2) 모음의 표기에서 /어/ 와 /오/ 를 구별없이 /o/ 로, /으/와 /우/ 를 구별없이 /u/ 로 표기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를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에/ 와 /애/의 구별도 하지 않고 모두 /e/ 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로마자 모음 기호 다섯 개로 한국어의 모음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적을 수 있다:

/이/ = /i/, /에/애/= /e/, /아/ = /a/
/어/오/= /o/, /으/우/ = /u/

이렇게 하면 구별하지 못하는 모음들을, 구별부호를 더해 복잡하게 적음으로서 읽는데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고, 기호도 절약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7.2. 현행안의 모음 기호

만일 현행안의 모음 기호 표기를, 일부 주장대로 바꾸어야 한다면 /어/을 단일 기호인 /o/로, /으/을 /u/로 적고, /오/는 /ow/로, /우/는 /uw/로 적을 수 있다. 여기서 /w/는 주로 원순성을 나타내는 부호로 보아서, 이를 갖지 않은 o, u 와 구별된다.

8. 장단과 된소리의 표기

현행/시안/확정안을 막론하고 장단과 된소리 표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바, 특히 원음의 환원성에 역점을 두는 확정안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를 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은 한국어에서 의미의 분화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가령, "없다"/어:ㅂ따/ 와 "업다"/어ㅂ따/는 /어/ 모음의 길이에 의해 의미가 분화되므로, 로마자 표기에서도 마땅히 구별해서 적어야 원음의 환원성이 높아진다. 필자는 이력

한 장모음을 같은 기호를 두번 써서 적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여긴다.

보기) "안타" /aanda/ "이발" /iibal/
 "계단" /geedan/ "불다" /buulda/

같은 이유로 음운 표기에서는 된소리를 표기해야 다음과 같은 낱말이 구별된다.

보기) "강가" /강가/ /ganga/ "강가" /강까/ /ganggga/
 "영자" /영자/ /yongja/ "영자" /영짜/ /yongjja/

9. 맺는 말

- 1) 열등한 대안이 없는 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혼란을 예방하고 국익에도 이롭다.
- 2) 필요하다면 실용적인 표기법을 도입하여 현행안과 병용할 수 있다.
- 3) 모음 표기에 구별부호는 피하는 것이 좋다.
- 4) 된소리와 장단 표시가 도입되어야 완전한 음운표기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문교부. 197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

_____ 197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안.

이 현 복. 1979. "로마자 표기법 개정시안의 문제점". 말 제 4 집.

_____ 1979. "외래어 표기법 개정시안의 문제점". 어학 연구 제 15 권 제 1 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교수 >